"도덕성·지역개발 내가 1등" 입지자 봇물

김경부·양인섭·김흥래·이동진·김희수 '인지도' 앞서

김병동·박종석·강희원 "투자유치 앞장" 경선전 가세

■진도군수 입지자

진도군수는 21일 현재 공석 중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선 4기로 당선된 박연수 전 군수가 지난해 7월 공사수주와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이처럼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지자 8명의 입지자가 경쟁을 시작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5명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혈투를 벌이는 등 어느 지역보다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8명의 후보 중 김경부·양인섭 전 군수를 비롯, 이동진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 김흥래 전 행정자치부 차관, 김병동 전 전남도의원, 박종석 전 진도군 기획예산실장, 강희원 전 광명시의원 등 7명은 모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계획이다. 여기에 김희수 전 진도군 환경녹지과장은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후보는 전직 군수인 김경부, 양인섭 후보. 여기에 이동진 전 사장, 김흥래 전 차관, 김희수 전 과장 등이 5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 공무원 출신으로 순경부터 시작해 경무관까지 승진한 후 지난 2000년 3월 퇴직하고 정계에 뛰어든 김경부 전 군수는 2004년 6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박연수 전 군수와 맞붙어 석패하고 2년여 만에 군수자리를 내준 뒤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권토중래를 꿈꿔왔다.

김 전 군수는 "2년의 재임기간 동안 최하위권이었던 진도군의 청렴도를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며 "또 전국 최초로 '노인 공경군'을 선포, 노인복지 부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풍요한 진도' '살맛나는 진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인섭 전 군수는 고학으로 24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에 성공한 뒤 정계에 입문, 1대와 2대 군의원을 지냈던 입지전적 인물. 지난 1998년 무소속으로 군수직에 도전했으나 낙마한 뒤 2002년 6·13 지방선거에 재도전,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16개월 만에 군수직을 접어야 했다.

진도에서 평생을 살아와 명함을 주지않아도 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양 전 군수는 "짧은 군수생활로 진돗개테마파크 건설 등 진도발전의 큰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는 등 개인적으로는 물론, 군민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많았다"며 "늦었지만 그림을 완성, 인구 6만~7만명의 '돌아오는 진도군'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토지공사 창립사원으로 입사, 한국토지신탁 사장까지 지낸 이동진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경영인의 장점을 내세워 표밭을 다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군수선거에 출마, 실패를 경험한 이 전 사장은 3년의 전남개발공사 사장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8월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 전 사장은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에 있다"며 "개발과 투자 유치의 경험을 살려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진돗개를 산업화해 소득 창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던 민주당 진군군수 후보 경선은 김흥래 전 차관이 뒤늦게 합류하면서 파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진도에 내려온 지 50여 일밖에 되지 않아 인지도가 많이 낮지만 '큰 인물'론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1964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전 차관은 7년만인 1971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00년 1월 차관으로 공직을 마칠 때까지 36년 동안 18년은 내무부에서, 나머지 절반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근무하며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했다.

윤증현·정종환 장관 등 고시동기생을 비롯한 중앙 인맥을 고향 발전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의료와 상·하수도 서비스 향상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문제와 주택문제를 해결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진도군의 미래비전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도 사업으로 반영시키는 한편, 중앙정부 예산과 민간투자를 유치, 진도군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기획예산실장 출신인 박종석 인선장학재단 이사는 진도군청에서만 35년을 근무한 토박이. 지난 2004년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경선에 참여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임기 내 5만 인구를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해 귀농자 대책, 실버타운 건설, 다문화 가정 배려 등의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팽목항 배후에 산업도시를 조성, 투자유치를 받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 출신인 김병동 전 전남도의원은 "군수들의 낙마로 혼란해진 군정 개혁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군수자리는 봉사와 명예의 자리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 경기 광명시의원을 지낸 강희원 민주당 중앙대의원은 진도에서 초중고를 나온 뒤 대학과 일자리 때문에 광명으로 올라갔다가 첫 지방선거를 수도권에서 경험했다. 지난 2006년 6월 낙향한 강 전 의원은 진도 농수산물의 수도권 판매 전략을 기치로 내걸고 진도군수 경선에 뛰어들었다.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민주당 입당을 포기한 채 무소속으로 느긋하게 민주당 공천자를 기다리고 있는 김희수 전 진도군 환경녹지과장은 36년간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과장은 "진도에서는 농수산업 등 1차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여기에 특산물과 문화·예술 등을 관광과 연계해 주민 소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진도군수 입지자 〈가나다 순〉

강희원(54)	김경부(70)	김병동(68)	김흥래(68)	김희수(54)	박종석(60)	양인섭(70)	이동진(64)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전 광명시의원	전 진도군수	전 전남도의원	전 행자부차관	전 진도군 환경녹지과장	전 진도군 기획예산실장	전 진도군수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

■쟁점&변수

①토박이 vs 귀향인사 격돌

②능력보다 청렴도?

③지역 연고 투표 가능성

진도군수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토박이와 귀향인사' 간의 대결구도다.

양인섭 전 진도군수, 김희수 전 진도 환경녹지과장, 박종석 전 진도군 기획예산실장은 일생을 고향 진도에서 살아온 후보다.

이에 반해 김흥래 전 행자부차관, 김경부 전 진도군수, 이동진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 김병동 전 전남도의원, 강희원 전 광명시의원은 타향에서 성공한 뒤 고향 발전에 나서겠다고 돌아온 인사들이다.

'고향 지킴이'를 자처하며 지역 발전에 앞장서온 토박이 입지자들은 "정작 고향에서 필요로 할 때는 입신양명을 위해 고향을 떠났다가 이제 와서 고향에 내려와 표를 부탁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귀향인 후보들은 "중앙 무대에서 쌓아온 경륜과 인맥이 고향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군민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수년 전에 고향을 내려와 그 동안의 시간적·공간적 공백을 메워온 후보들도 상당히 있고 최근 귀향한 후보들도 '큰 인물'론을 내세워 진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 고령의 후보들이 많은 때문에 젊은 패기와 노련미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8명의 입지자 중 70대는 2명, 60대는 4명이나 된다. 이에 비해 50대 후보는 김희수 전 과장과 강희원 전 의원 2명뿐이다. 이들은 정부 요직의 장차관들도 대부분 50대로 진도군도 젊은 피 수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나 고령의 후보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건강으로도 50대 후보 못지않고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능가한다"고 반격을 가하는 형국이다.

진도군에서는 지난 3, 4기 군수가 모두가 선거법 위반과 비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해 보궐선거를 치른 탓에 군정이 흔들리면서 지역발전도 이룩하지 못했다. 때문에 '도덕성'과 '청렴도'를 내세우며 군민들에게 다가서는 후보들이 대부분이다.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잣대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출신면·읍을 따지는 소지역주의가 나타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양인섭 전 군수와 이동진 전 사장은 진도읍, 김경부 전 군수는 임회면, 김흥래 전 차관은 군내면 등 출신지나 주소지 등에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1곳으로 줄어 3강 2중 구도 대혈전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두 명의 전남도의원을 뽑다가 이번부터 한 명만 선출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군수선거 못지않게 경쟁이 치열하다.

김재복 전 진도군수 비서실장, 이기암 전 진도고등학교 교장, 이영윤 전남도의원, 장일 전남도의원, 차남행 전 열린우리당 당원협의회장 등 모두 5명의 후보가 도전을 선언했다.

이중 이 전 교장, 장 의원, 차 전 위원장 등 3명은 이전 1선거구 출신이고 나머지는 2선거구 출신이다. 그런데 유권자 수는 1선거구(진도읍· 군내·고군·의신면 1만9천500여명)가 2선거구(임회·지산·조도면 9천800여명)의 두 배나 돼 출신지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장일, 이영윤 두 현역 도의원과 이기암 전 교장이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나머지 두 후보가 추격하고 있다는 게 진도 정가의 일반적 분석이다.

고 이정일 의원의 측근이었던 장일 도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탈당을 하면서 당시 무소속이었던 김영록 의원(민주당)을 도왔던 1등 공신. 그는 "지난 4년 동안 경제문화관광위에서만 활동하면서 진도를 스포츠 전지훈련장과 전통문화예술의 메카로 만들 구상을 가다듬어왔다"며 "또 쌀 생산 위주의 현재 농업방식을 특용작물 위주로 바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재선의지를 다졌다.

35여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지난 총선 때는 진도군선관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기암 전 교장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신뢰를 주고 어려워져가는 진도지역의 농수축산 및 교육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 경쟁력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5,6,8대 3선의 이영윤 도의원은 신민당·평민당 진도군 연락소장을 지내면서 정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 의원은 "도의원 수가 한 명으로 줄어들어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폭 넓은 의정경험과 지역개발 능력을 갖춰 두 명 몫을 해낼 도의원이 필요하다"며 "3선 동안 도의회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배우고 익힌 지역발전 전략 노하우를 고향을 위해 후회 없이 풀어놓겠다"고 말했다.

차남행 전 협의회장과 김재복 전 실장도 진도군청에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주민과 접촉하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도의원 입지자

이름	경력
김재복(55)	전 진도군수 비서실장
이기암(64)	전 진도고등학교 교장
이영윤(65)	전남도의원
장 일(53)	전남도의원
차남행(55)	전 열린우리당 당원협의회장